

우리 종단을 말한다 | 대한불교미타종

대한불교미타종 총무원장 해암 스님

“무애보시 실천하는 미타사상”

종단 역사가 짧아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창종 정신을 우리 사회에 긍정적으로 구현하고 있는 젊은 종단들이 적지 않다. 포교와 전법에 매진하고 있는 이들 종단의 창종 이념과 역사, 주요 활동 및 사업계획을 각 종단 대표자로부터 들어본다. <편집자 주>

월공 벽암 대종사께서는 1942년 8월 18일, 미타신앙을 계승하고 국태민안(國泰民安)의 호국불교 사상으로 정법 유통의 광명을 전 인류에게 밝히고자 봉암사를 창건, '대한정도불교'를 창종했다. 지금의 대한불교미타종(1984년 종명 변경)이다. 봉암사는 벽암 대종사께서 1942년 3월 창건한 이래, 1977년 강제 철거 후 현재의 위치(충북 단양군 가곡면 대대리 산 536번지)로 신축·이전해 아미타불을 주불로, 보신 미타보전과 천불전 등을 갖춘 본 종단의 총본산으로 자리 잡았다. 본 종은 미타정도 염불종으로서 석가모니 부처님의 교법에



전문포교지 <미타법보>를 창간하고 승려 및 신도의 자질 향상 및 포교를 활성화하기 위해 '국제 불교정법대'를 개설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해온 본 종단은 1990년 사단법인 한국불교종단협의회에 가입해 본격적인 대외활동을 시작했다. 1991년 일

호국불교사상 전 인류에 밝히고자 창건 포교활성화 위해 문서포교·봉사활동

기원해 유수·혜원 스님 등 중국의 미타사상가들에 의해 이뤄지고 신라에 들어와 자장·원효 스님 등에 의해 선양된 '미타신앙'을 핵심으로 한다. 그리고, 역대조사들의 유통염불신앙의 법맥을 계승, 함허 선사를 종조로 왕생미타문을 세우 전법도생(傳法度生)하고 있는 종단이 현재의 미타종이다. 아미타불의 48원고 '나무아미타불' 6자 명호 염불을 근간으로, 타력염불(他力念佛)을 중지로 삼아 화엄정토교의를 구족해 후세의 안심입명(安心立命)과 사후의 왕생극락(往生極樂)을 통한 중생 제도를 실천하고 있음은 물론이다. 선사상과 정토사상을 아우르고 육바라밀을 앞세워 사회참여와 무애보시(無碍布施)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있

본 대창사를 시작으로 대만 육불사, 중국 삼연사, 캄보디아불교 등 많은 나라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으며, 2007년 10월 덴진 린포체 초청 국제보살계를 봉행하는데 다양한 행사를 진행했다. 앞으로도 본 종단은 '각 교구 양로원·고아원 등과 자매결연 의무화' 등을 통해 사회봉사활동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며, 불교권 국가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보호를 위해 화상시에 태극사찰을 건립하는 등 사회적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다. 또한 종단 승려의 노후복지를 위해 봉암사에 노인승려 복지사업을 추진하고, 호국인왕산 인왕사 지역을 성역화하는 등 종단 내부의 사업도 착실히 진행해 포교에 더욱 힘쓰겠다.

정리=김진성 기자

“신도교육 강화로 제2의 도약”

창건 10주년 맞는 천태종 관문사



서울 서초동 우면산 관문사 전경.

특정 사찰에 등 하나 밝힌 인연으로 '00사찰 신도'라 불리는 경우는 한국불교 병폐로 술하게 지적돼왔다. 정부의 종교편향 논란에 8월 27일 서울시청 앞 광장에 20만 불자들이 결집한 뒤 불멸 외호를 위한 참불자 한명, 한명의 역할이 주목받는 요즘이다.

이런 가운데 3일 기도와 입교법회를 거친 불자만을 신도로 인정해 높은 수행력과 신심을 갖춘 불자 양성에 힘쓴 천태종의 수도권 전법도량 관문사주지 정산가 창건 10주년을 맞았다. 관문사는 천태종 중창조 상월 조사 '서울에 큰 천태사원(寺院)을 세우라'는 유언에 의해 서울 서초동 우면산에 1988년 창건됐다. 천태종 제2대 종정 대종사 증명으로 현 부지 1만3000여㎡(4200평)를 매입한 뒤, 1993년 10월 11일 기공식을 갖고 1997년 12월 31일 준공했다. 부지매입 후 5년에 설계기간과 4년여 공사기간을 거친 관문사 대각불사는 단일사찰 건물로는 최대인 지하 4층, 지상 7층의 총 건평 2만1000여㎡(6500여평) 규모의 위용으로 화려했다.

단창에만 9개월 정성을 쏟으며 고전적 전통미를 현대건축에 접목하게 접목시킨 7층 대불보전을 비롯해 국내 최대 규모의 육불을 보관한 육불보전은 관문사의 백미다. 관문사는 이들 신행공간에 국제회의장과 성보박물관 등을 갖췄다. 특히

4층부터 3개 층에 걸친 육불보전은 법회 및 신행공간은 물론 각종 사회단체 행사 및 지역민을 위한 문화예술의 장으로 사용돼 대중들의 호응이 높다.

관문사는 불교문화를 통한 포교도 강점이다. 불교 전통문화 계승과 발전을 위해 개관한 성보박물관은 3주년을 맞았다. 대다수 사찰에서 정체성 없이 행해지는 꽃꽂이를 불교식으로 개선하고자 보명 스님(한국불교연화꽃꽂이연합회 회장)을 초빙해 강좌를 열었고, 다도반 등 다양한 문화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다.

매월 첫째 주 일요일 정기법회에만 연인원 50여만 신도가 다녀가는 관문사의 등록신도는 1만2000여가구, 5만여명. 신도회 신하에 지장화,

관음화, 거사화, 청년화와 자원봉사단체인 상락회 등 여러 신행단체를 두고 활발한 활동을 펼쳐왔다. 2007년 북경 영광사와 자매결연을 맺고 정기적으로 왕래하는 관문사는 국내 포교뿐 아니라 해외교류에도 앞장서 왔다.

한편 창건 10주년을 맞는 관문사는 한지에 다양한 색의 연색을 들여 만든 종이꽃인 지화(紙花) 특별전을 개최한다. 관문사 성보박물관에서 열리는 행사는 10월 5일부터 11월 2일까지 계속된다. 관문사 창건 기념일인 10월 5일 10시에는 특별전 개막식이, 11시에는 관문사 창건 10주년 기념 대법회가 봉행된다. <02> 3460-5300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nia.com

“인재불사에 최선 다할 것”

관문사 부주지 세운 스님 인터뷰



“불교위기설까지 불리는 종교편향 논란도 결국 불자들이 공부 않고, 교육 안시키고, 사회참여를 등한시한 결과입니다. 양질의 신도양성만이 한국불교가 살 길입니다.”

천태종 관문사 부주지 세운 스님은 “천태종 중창조 상월 대조사 유족을 받들어 관문사 창건을 이뤘다. 유족에 담긴 참뜻을 바로 이루려면 신도 교육을 강화해 관음수행도량으로 거듭나야한다”고 강조했다.

관문사는 올해부터 신도 교육기관으로 종단이 운영하던 금강불교대학을 이관해 운영 중이다. 관문사가 신도 교육을 강화하며 인재불사에 적극적으로 나선 것은 스님의 원력이 컸다. 세운 스님은 “불교와 불자가 잘되면 교육과 수행 밖에 다른 길이 없다”고 거듭 주장했다.

장근죽비 같은 세운 스님의 뜻에 관문사 대종 500여명은 9월 25일부터

매일 8시간씩 55일간 관음 정진 하는 '관세음보살 100만 독송'에 돌입했다. 스님은 “관문사의 지난 10년이 지역에 뿌리내리는 기간이었다면 이제는 사회에 다가가는 역할을 할 시기”라며, “군포교 및 해외봉사 활동 등에 주력하겠다”고 말했다. 기존 금강불교대학 졸업한 신도들을 재교육해 봉사활동에 동참시킬 복안도 내놓았다. 세운 스님은 “불교가 좋아지면, 불자가 행복하려면 실천이 중요하다”며, “믿고 믿고 배운 것을 실천행으로 회향하는 것이 관문사의 미래 비전”이라 설명했다.

조동성·이상언 기자

태고종, 제33기 합동독도 수계산림 입재

태고종(총무원장 운산)은 9월 30일 한국불교전통문화전승관 3층 대불보전에서 제33기 합동독도 수계산림 입재식을 시작했다. 4주에 걸쳐 매일 새벽 4시 새벽예불 및 정근을 시작으로 강의, 윤력, 참선수행, 저녁예불 및 참회 정진 등의 교육과정에 들어

간다. 수계식은 10월 24일 태고총림 선암사 금강계단에서 봉행될 예정이다. 이번 수계산림은 각 사암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9월 10일

행차소양시험과 신체검사를 통과한 행차들을 대상으로 한다. 태고종 스님이 되기 위해서는 종단에서 실시하는 득도계단에서 수계독도 후 동방불교대학, 또는 태고총림 선암사 전통강원, 태고종 비구니 강원(보덕사) 등을 졸업해야 한다. 한편 합동독도 수계산림은 지난해까지는 1회 실시했으나 금년부터는 봄·가을로 2회 실시된다. 지난 봄 수계산림에서는 100명의 사미(尼) 스님들을 배출했으며, 이번에는 51명의 행차들이 합동독도 수계산림에 동참한다. <해설 총정리>

국가사회 통합발전 기원불사 봉행

진각종, 10월 6일부터 11월 23일까지

진각종(총무원장 최정 정사이) 국가와 사회의 통합과 발전을 기원하는 49일 진조국가불사를 봉행한다. 진각종은 9월 23일 “종교편향과 차별 등으로 대두된 불교계의 현안을 주시하면서 중도적 견해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문제를 수행이라는 본분사로 해마다 하고, 참회와 실천으로 인과를 깨달아 중도와 화합을 구현하고자 49일 진조국가불사를 봉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진각종은 9월 23일자로 서울을 비롯한 대구, 부산, 대전, 광주, 포항, 전라 등 7개 교구청과 일선 심인당에 공문을 발송해 “10월 월초불공이 시작되는 6일부터 11월

23일까지 49일간 전국 심인당에서 불사를 봉행해 달라”고 요청했다. 총무부장 효심 정사는 “우리 종단은 진조국가불사의 호국적 이념을 49일 불공으로 실천 수행해 상생(相生)의 생활불교를 실천하고 종교적 차별을 극복하며 중도적 가치와 회통(會通)의 가치를 살리는 현재정화(正化)의 주인으로 진아(眞我)인 심인을 구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효심 정사는 또 “‘헌법과국’에서 정교분리의 구현으로 자유와 평등의 민주적 가치를 수행으로 가꾸는 종단의 선언을 시작으로 우리 사회의 바른 종교문화, 바른 삶의 가치를 제시코자 한다”고 덧붙였다. <김성우 기자>

통합종단중흥회

‘불교 발전방안’ 논의

한국불교통합종단중흥회(대원장 지암)는 9월 24일 평창동 킨스 호텔 회의장에서 정기 월례회의를 진행했다.

대원장 지암(해동불교임제종) 스님의 인사말로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현실불교 발전방안’과 ‘승려자질 개선’ 등의 의제가 논의됐다. 회원들은 “먼저 승려교육의 체제를 일원화하여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종교지도자로서의 자질을 확립하고 내부 결속을 다져 회원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자”고 의견을 모았다.

이날 회의에서는 각 원장 직책에 대한 선임장이 전달됐다. <김성우 기자>

관음종, 9월 24일

구족계-사미계 수계법회

관음종(총무원장 홍파)은 9월 24일 총본산 낙산 묘각사에서 종단 행차자들이 동참한 가운데 구족계와 사미계 수계식을 봉행했다.

창종 104주년을 맞아 종단 단원계단인 영산계단을 설치하고 가진 구족계 수계식은 3사 스님으로 전계대 회상에 남친 죽산 스님, 갈마아사리에 인봉 스님, 교수아사리에 흥파 스님 그리고 7중사 스님이 참여한 가운데 봉행됐다. <김성우 기자>

“법화종 총무원장 불법행위 해

대한불교법화종 총무원장 해륜 스님이 불법행위를 일삼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불교법화종 정회추진위원회는 9월 25일 프레스센터 7층 레이첼 카스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총무원장 해륜 스님은 ▲비구니스님에게 1억 여원 갈취 ▲최종학력 허위 기재 및 승려 수행경력 허위 기재 ▲종단 내 사찰 편취 및 불법매매 ▲총할 주지를 상대로 한 기부금 빚자 갈취 등 불법행위를 자행했다”며 총무원장 및 관련자 사퇴를 주장했다. <노덕현 기자>

고무신코 만 행화

2008년 9월 5일 - 8일까지 한국불교박물관 출품예정

특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진회색

지압슬리퍼
• 가격: 5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사부대중 선물

지압·동 깔창

조각무명
• 가격: 12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자연색

건강샌들
• 가격: 90,000원
• 규격: 230-280mm (10mm단위)
• 색상: 진회색, 검정

사계절단화
• 가격: 8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 밴드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망사단화
• 가격: 70,000원
• 규격: 215-290mm
• 색상: 회색, 검정

3-1 끈
• 가격: 90,000원
• 규격: 215-255mm
• 색상: 검정, 회색

■ 문의 및 주문전화: 02)733-5715, 011-9000-5715
■ 입금계좌: 농협 063-12-250427(구자민) 합장

◆ 본사, 전시장: 서울 중로구 공평동 143번지 402호 (종각역 2번 출구 100m거리)

“승기건강비법 신비의 나무” [마·가·목]

강원도에는 옛부터 전해오는 속설에 노인이 마가목 지팡이를 짚으면 굵은 허리가 펴지고 아이를 못낳는 여인이 마가목 가지로써 지금도 승가의 선원에서 참선수도하는 스님들은 기력을 돋우기 위해 마가목 차를 드시고 있으며 산승이 비법을 전수받아 갖가지 진귀한 열매와 약수로 맑고 향기롭게 정성껏 달여서 (1달분 60봉 두재 분량) 보시해 드릴 수 있습니다.

■ 1988년 11월 6일 오전 6시 40분 - KBS-2 TV “건강하게 삽시다” (강원도 오대산 승가비법 약초기행 마가목을 찾아서)방영
■ 2000년 10월 25일 수요일 - KBS-1 TV 아침방송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나무차 소개)방영

본초강목, 동의보감 기록

첫째, 그 성질은 따뜻하여 몸이 쇠약하고 풍습비 해수 등을 다스리고 둘째, 허리를 가볍게 하며 두뇌세포를 촉진 통풍, 신경통, 관절염, 기관지염, 방광염, 위염, 폐결핵, 팔다리가 저리거나 허리가 아프고 몸이 차고 냉한 사람 셋째, 중풍, 동맥경화, 고혈압, 풍 예방 및 기력을 돋우어 주어 신장(공팔)을 튼튼하게 하고 피로를 제거하며 간장을 보호하고 보혈, 신기학약, 조갈증, 당뇨와 고지혈증에 특효 넷째, 불안, 우울, 불면증을 해소하여 골병이 든 어혈도 풀어주며 비만 체질(지방을 분해하여 살이 빠지며)과 성인병 예방 다섯째, 심장을 안정시키며 마음을 편안하게 하고 양기를 돋우며 수축을 해소

※ 계절이 바뀌면서 체질변화로 인해 항상 피로하고 노곤하며 기운이 없는 사람에게 활력이 생깁니다.

◎ 약품은 아니며 체질개선에 도움이 됩니다 ◎

“실험 사례” 폐 식용유에 마가목 액을 섞었더니 맑게 정제가 됩니다. 즉, 만병의 근원인 혈액속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여 피를 맑게 합니다.

경기도 양평군 용문산 도솔암
전화번호: (031)775-1285 지수 대진 입장

탈 종 공 고

- 사찰명: 성오사
- 법 명: 법진(김길순) • 승 번: 01-003
- 사찰명: 금덕암
- 법 명: 법현(홍금자) • 승 번: 01-002
- 사찰명: 정수사
- 법 명: 법운(이태선) • 승 번: 01-004

상기 사찰 및 본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 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고려불교조계종 총무원장 법하